

#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 확률 판단 및 부담 정도 판단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 명 숙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에 대한 부담 정도의 평정에 서 나타나는 인지적 판단 편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과 함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여대생 253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SPO), 주관적 부담 정도 평정 척도(SCQ), 사회적 상 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SSSES),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S)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를 통해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를 통해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매개-중재 모델 이 지지되었다. 한편, 비사회적 사건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지지되지 않았다.

주요어 : 사회불안,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확률 판단,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부담정도 판단,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불안장애는 낮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

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 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영 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 FAX: 032-340-3275 / E-mail: yhlee@www.cuk.ac.kr

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와 같은 정신과적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사회공포증'을 진단할 경우에, 사회공포증은 우울증, 알콜 중독 다음으로 가장 흔한 정신과적 장애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우리나라에서의 유병률은 서울이 0.53%, 지방이 0.65%로 보고되었다(이정균, 박영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옥, 이영호, 1986). 또한 사회불안은 일반인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지방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용래, 원호택, 1997)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의 유형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지만, 54.9%(면접시험상황)~24.7%(사교적 모임)의 학생들이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만남의 경우에도 8.5%의 학생들이 중간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공포증은 이처럼 흔할 뿐 아니라 알콜과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기능장애들을 수반하며, 일상적 사회적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학업이나 일에서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1966년 Marks와 Gelder가 처음으로 사회공포증 혹은 사회불안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후, 1980년에 DSM-III에서 공식적 진단체계 속에 포함된 이후에야 임상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Heimberg, 1989; Scholing & Emmelkamp, 1990).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인지적 입장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불안에 대한 인지적 입장의 연구들 중의 하나로 사회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적 판단 편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인지적 편향은 불안장애들을 특징짓는 두려움과 회피의 원인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왔다(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88).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판단편향으로는 두려워하는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 즉, 부정

적 사건의 발생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평정하는 인지적 판단 편향과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단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즉,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갖는 부담 정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정하는 인지적 판단 편향을 들 수 있다.

Lucock과 Salkovskis(1988)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 높은 발생 확률 평정을 보였음을 보고했는데 부정적인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Foa, Franklin, Perry 및 Herbert(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과 부담 정도 평정 모두에서 인지적 판단 편향을 보였으나,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적 판단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적 판단편향들이 내용-특정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판단 편향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사회불안증상의 감소에 기여했는데, 부정적 사회적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 평정에서 보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에서의 변화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처치 결과를 더 잘 예언해서 사회불안에 있어서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판단편향에 비해서 부담정도 판단편향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Foa와 Kozak(1985)도 공황장애와 같은 몇몇 불안장애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사회공포증과 같은 불안장애는 사소한 사회적 불인정 같은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즉, 그 상황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담정도와 관련된 인지적 판단편향의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내용을 가진 사건에 특정적으로 인지적 판단 편향을 보이는 것에 더해, 이러한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평정하는 것에서보다는 그러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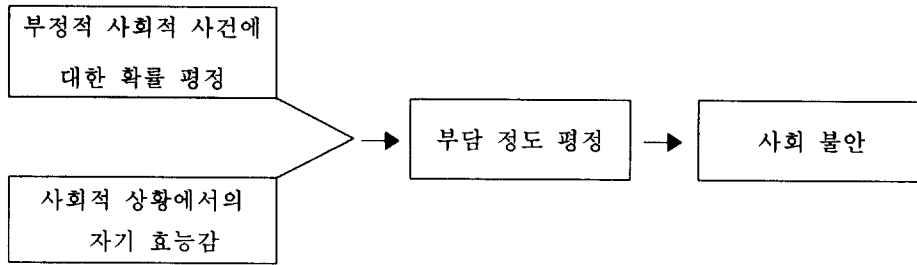


그림 1.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및 부담 정도 판단 편향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

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나쁘거나 괴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를 평정하는 것에서 사회적 불안이 낮은 사람들과 더 잘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eck, Emery 및 Greenberg(1985)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확률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더해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인지적 왜곡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즉,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Edelman(1985)은 사회 불안을 가진 환자들이 자신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실제보다 높게 지각하기보다는,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자기 효능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인다(Wallace & Alden, 1991, 1995, 1997). 또한, Bandura(1986)는 이러한 자기 효능감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활동의 결과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그 상황에서의 결과가 더 나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지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 즉, 부담 정도를 높게 평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주요 모델들에서는 위와 같은 인지적 판단 편향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인지적 판단 편향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함께 사회불안 증상에 기여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 일어날 확률 평정의 판단 편향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의 부담 정도를 높게 평가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불안은 상황에 특징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 아닌 비사회적 상황에서의 인지적 편향은 사회불안을 예언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델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대 상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의 자료 중에서 측정도구에 결측치가 있거나 답변이 명백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한 25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 평균은 22.23, 표준 편차는 5.05였다.

## 도 구

**주관적 확률 및 부담정도 평정척도(Probability/Cost Questionnaire : PCQ).** 이 척도는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SPQ : Subjective Probability Questionnaire)와 주관적 부담 정도 평정 척도(SCQ : Subjective Cost Questionnaire)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척도는 부정적 사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20문항은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고, 20문항은 부정적 비사회적 사건이다.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는 0점에서 9점에 이르는 10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0점에서 4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번안 과정에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검자로 하여금 각 사건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5점 척도(0점 :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4점 :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상에 평정하도록 하고, 주관적 부담 정도 평정 척도는 그 사건들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쁘거나 괴로울지를 5점 척도(0점 : 전혀 나쁘지 않을 것이다 ~ 4점 : 극히 나쁠 것이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두 하위 척도들 각각에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60점이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 반분 신뢰도는 .88,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고, 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부담 정도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 반분 신뢰도는 .89,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이었다.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며, 반분 신뢰도는 .81,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6이었고,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부담 정도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며, 반분 신뢰도는 .86,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이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에 대해서는 2요인 모델을 가정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 1을 낮은 사회적 수행의 결과와 관련된 부정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했고, 요인 2는 불안의 행동적 증상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부담정도 평정 척도도 2요인 모델을 가정하였는데, 요인 1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고, 요인 2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 1에 비해 심하지 않고 증성적인 쪽에 더 가까운 부정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했다.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정 척도와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부담정도 평정 척도도 각각 2개의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Social Self-Efficacy Scale : SSES).** 특정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해 개인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대인간 상호작용 상황과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조용래와 원호택(1997)이 제작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Social Interaction Self-Efficacy Scale : SISES) 8문항에, 조용래, 이민규 및 박상학(1999)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5가지 발표 불안 상황을 포함하는 발표 불안 위계표 5문항을 첨가한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검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1점 척도(0점 : 전혀 해낼 수 없다 ~ 10점 : 정말 잘 해낼 수 있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30점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고, 반분 신뢰도는 .94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다. 2요인 모델을 가정하고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요인 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사각 회전을 하였다. 요인 1은 상호작용 상황을 나타내는 6문항을 포함하고, 요인 2는 타인에 의한 수행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포함하는 7문항을 포함했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 SADS).** 이 검사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SADS는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극히 그렇다)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8점에서 14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SADS는 내용상으로 총 28개 문항 중 14개 문항은 회피와 관련된 문항으로, 14개 문항은 불안과 관련된 문항으로 나눌 수 있다. SADS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alpha$ )는 .92이며, 반분신뢰도는 .94,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다.

절 차

SPQ, SCQ, SSES, PSCS 및 SADS 다섯 가지 질문지를 소책자로 나누어주고,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매개-중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DOWS 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사회적 사건에 대한 모델 검증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의 사회불안에 대한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beta = .56, p < .001$ , 사회불안의 31%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의 매개 효과가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매개-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재 변인인 자기 효능감을 중앙치 73점을 기준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 $n=125$ )과 낮은 집단( $n=128$ )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의 매개 효과를 일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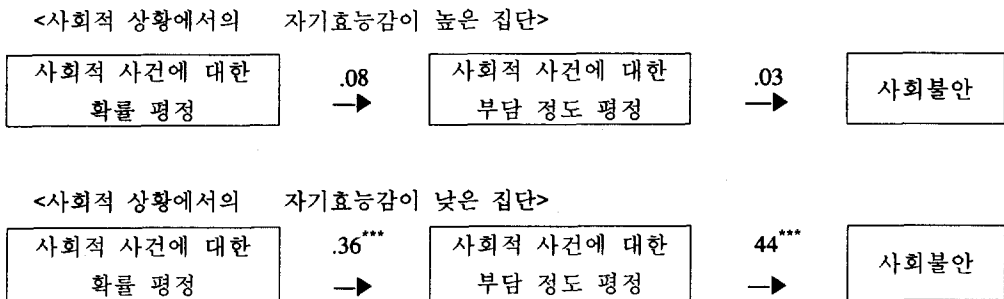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을 매개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른 매개-중재 효과 모형 (수치는 회귀계수. \*\*\*  $p < .001$ )

표 1.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과 자기 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M	SD
상(n=36)	상(n=16)	48.88	6.73
	하(n=20)	56.90	10.67
하(n=217)	상(n=169)	46.42	10.82
	하(n=48)	46.75	7.71

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부담 정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08$ )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담 정도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03$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부담 정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beta=.36, p<.001$ , 설명변량은 13%였으며, 부담 정도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미하였으며,  $\beta=.44, p<.001$ , 설명변량은 19%였다. 따라서, 부담 정도 평정을 매개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른 매개-중재 효과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매개-중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 효과가 완전 매개인지 아니면 부분 매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 없이 확률 평정은 사회불안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는데, 부담 정도를 통한 매개 효과를 배제한 확률 평정의 직

접 효과는 사회불안 변량의 14%( $p<.001$ )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담 정도의 매개로 인해 확률 평정의 직접 효과가 26%에서 14%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아 있어서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 효과는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과 자기 효능감이 부담 정도 평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률 평정 수준을 최빈치 38점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자기 효능감 수준을 하위 25% 지점인 60점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률 평정의 주효과와,  $F(1, 251)=11.23, p<.001$ , 자기 효능감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F(1, 251)=4.93, p<.05$ ,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251)=4.18, p<.05$ . 확률 평정과 자기 효능감에 따른 부담 정도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또한, 부담 정도 평정과 자기 효능감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

표 2.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과 자기 효능감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M	SD
상(n=118)	상(n=56)	66.09	13.59
	하(n=62)	90.16	15.70
하(n=135)	상(n=69)	66.86	14.73
	하(n=66)	81.05	11.29

담 정도 평정 수준을 중앙치 48점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자기 효능감 수준도 중앙치 73점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담정도 평정의 주효과와,  $F(1, 251)=5.66, p<.05$ , 자기 효능감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F(1, 251)=118.77, p<.001$ ,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251)=7.92, p<.01$ .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2)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모델 검증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의 사회불안에 대한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beta=.19, p<.01$ , 사회불안의 3.7%를 설명하였다.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을 매개로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 효능감을 따른 매개-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재 변인인 자기 효능감의 중앙치 73점을 기준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 $n=125$ )과 낮은 집단( $n=128$ )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에서의 매개 효과를 일련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결과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02$ )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결과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01$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결과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14$ )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03$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을 매개로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

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 효능감에 따른 매개-중재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을 매개로 확률 평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매개-중재 효과도 지지되었다. 또한, 확률 평정과 자기 효능감이 부담 정도 평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도 지지되었다. 즉,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그런 사회적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사건의 결과가 더 나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 정도 평정도 자기 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를 과도하게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런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확률 평정과 부담 정도의 평정이 각각 31%와 19%로 확률 평정에 비해서 부담 정도 평정이 사회불안의 더 적은 양을 설명했다. 한편, 부담 정도 평정 척도의 요인 1이 사회불안의 13%를 설명한데 비해서 요인 2는 19%로 더 많은 양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Foa와 Kozak(1985)이 사회공포증이 부담 정도 평정에서의 과장으로 더 잘 구별된다고 한 것이나, 부정적 사건의 부담 정도 평정에서의 변화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 평정에서의 변화보다 처치 결과를 더 잘 예언한 것을 보여준 Foa등(1996)의 연구 결과와

불일치한다.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 정도 평정 척도의 요인 1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는데 비해, 요인 2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 1보다 덜 심각하고, 더 중성적인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Foa 등(1996)은 인지적 판단 편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덜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척도에 포함시켰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 인지적 판단 편향의 개인차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한편, 비사회적 사건에 있어서는 확률 평정이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정도 평정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매개-중재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매개-중재 모델과 비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매개-중재 모델에서의 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치료받지 않은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높은 확률 평정을 보이고, 부정적인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Lucock과 Salkovskis(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공포증에서의 내용-특정적인 판단 편향의 존재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oa와 Kozak(1986)과 Butler와 Mathews(1983)가 주장한 것처럼 치료가 환자의 특정한 두려움과 관련된 확률과 부담 정도 편향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시에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불안의 감소에 기여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사회적 사건의 확률 평정과 부담정도 평정에 대해서 내용-특정적인 인지적 판단 편향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과 함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지적 편향과 자기 효능감을 통한 사회불안의 설명은 예기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회피 행동(Poulton & Andrews, 1994)과 그 회피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안전행동(Clark & Wells, 1995)의 설명을

위해 유용하다. 즉,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사건의 결과가 나쁜 정도를 과도하게 높게 평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미리 그런 상황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서 안전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여자 대학생의 집단에 국한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인이나 임상적 사회 공포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2요인 모델을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RMSEA가 .13으로 .10을 넘어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차후에 적절한 문항을 추가해서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재기 위해 문항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과 인지적 판단 편향을 재기 위한 척도의 문항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은 서로 다른 상황들이다. 동일한 사회적 상황을 설정해서 인지적 판단 편향과 자기 효능감을 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는 부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판단 편향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낮은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이정균, 곽영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욱, 이영호 (1986).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 (I). 서울의대 정신의학, 부록, 11, 121-141.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 (K-SAD, D-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조용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 제, 제 4집 397-434.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65-178.
- Alden L. E., Teschuk, M., & Tee, K. (1992). Public self-awareness and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Research and Therapy*, 16, 249-26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 Bandura, A. (199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606.
- Butler, G., & Mathews, A. (1983). Cognitive processes in anxiety.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 51-62.
- Clark, D. M.,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Edelman R. J.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288.
- Foa, E. B., Franklin, M. E., Perry, K. J., & Herbert, J. D. (1996). Cognitive biase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433-439.
- Foa, E. B., & Kozak, M. J. (1985).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In A. H. Tuma & J. D. Mast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pp. 421-542). Hillsdale, NJ: Erlbaum.
- Foa, E. B., & Kozak, M. J.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 20-35.
- Heimberg, R. G. (1989).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s for social phobia: A critica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107-128.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ucock, M. P., & Salkovskis, P. M. (1988). Cognitive factors in social anxiety and its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297-302.
- Makris, S. M. & Heimberg, R. G. (1995). The scale of maladaptive self-consciousness: A valid and useful measure in the study of social phob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731-740.
- McNally, R. J., & Foa, E. B. (1987). Cognition and agoraphobia: Bias in the interpretation of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67-588.
- Pervin, L. A. (1984).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Poulton, R. G., & Andrews, G. (1994). Appraisal of

- danger and proximity in social phobic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639-642.
- Scholing, H. A., & Emmelkamp, P. M. G. (1990). Social phobia: Nature and treatment.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pp. 260-324). New York: Plenum Press.
- Wallace, S. T., & Alden, L. E. (1991). A comparison of social standards and perceived ability in anxious and nonanxious 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237-254.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s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f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613-631.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 416-42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illiams, J. M. G., Watts, F. N., Macleod, C., & Mathews, A. (1988). *Cognitive psychology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Wiley.
- 원고 접수일 2000. 9. 1.  
수정원고접수일 2000. 12. 29.  
게재결정일 2000. 12. 29.

# The Effect of Probability, Cost Judgemental Biases for Negative Social Event and Self Efficacy in Social Situation on Social Anxiety

Meong Sook Cho Young 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obability and cost judgemental biases for negative social event and self efficacy in social situation on social anxiety. Subjective Probability Questionnaire(SPQ), Subjective Cost Questionnaire(SCQ), Social Self Efficacy Scale(SSES), Social Anxiety and Distress Scale(SADS) were administered to 253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probability judgemental biases for negative social events predicted social anxiety, and showed that self efficacy in social situation play the role of moderating probability judgemental biases for negative social events-cost judgemental biases for negative social events-social anxiety mediating path. But, this moderated mediation model for negative nonsocial events was not supported.

Keywords : social anxiety, probability judgment for negative social event, cost judgment for negative social event, social efficacy